

가뜩이나 더운데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주폭들’

음식점 등지 만취해 폭력 잇따라 광주 올 상반기에만 2300건 넘어 ‘온정적 처리’도 원인…재범률 높아 “처벌 강화 등 법 집행 실효성 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광주지역 폭력 사건이 올 상반기에만 2300건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전문가들은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법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주취 폭력 사

건은 총 2367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364명이 입건되고 18명이 구속됐다. 주취 사건에서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단순 폭언과 욕설을 넘어 물리적 폭행과 흉기 사용, 차량 절도까지 포함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5일 밤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남성 A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구속됐다. A씨는 최근 2년 사이 유사 전과만 8건에 이르는 상습 주취 폭력범이었다.

또 지난 5월3일 동구 한 식당에서는 50대 남성이 의자를 던지고 고함을 치며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고, 같은 달 9일에는 광산구에서 30대 남성이 술자리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

도 있었다.

같은 달 10일에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했으며, 22일에는 미성년자인 19세 청소년이 주점 인근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경찰까지 밀친 사건도 발생했다. 3월15일에는 광산구의 한 병원에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간호사와 입원 환자에게 4시간 이상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난 뒤 발생하는 범죄는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업장 주취 사건의 경우, 신병을 확보해 업무 방해를 막는 정도의 온정적 사건 처리만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주취 사건은 재범률이 높다. 하루에 2~3건 발생하

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위협하는 △주취 폭력 △흉기 사용 범죄 △생계형 폭력 등을 기초질서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각 경찰서에는 전담팀이 구성됐고, 상인회와 핫라인도 개설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중대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재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주취 범죄의 근본 원인으로 사회 전반에 퍼진 ‘음주 관용 문화’를 꼽는다.

호남대학교 김정규 경찰행정학과 교수

는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여전히 정상참작이 이뤄지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처벌 강화와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세 이상 국민의 고위험 음주율이 13.8%로, 음주에 대한 자제력이 낮은 사회 환경도 범죄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주취 폭력은 단순한 기물파손이나 소란 행위를 넘어, 시민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초질서 회복과 지역민의 체감 안전 향상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제석산 구름다리, 또 추락사… 8번째 사망

20년간 9건 사고 반복 불안 커져 추락방지망 등 안전대책 강화 추진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또다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올해만 두 번째, 2017년 이후로는 9번째로, 현재까지 이곳에서 숨진 이는 8명에 달한다.

남부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14분께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래로 떨어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외상이나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지난 1999년 단절된 등산로를 잇기 위해 설치된 보행 전용 교량으로, 산책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해

마다 추락 사고가 반복되면서 ‘죽음의 다리’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남구는 2020년 난간 높이를 2m로 높이고 회전형 난간도 설치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올해만도 2월, 4월, 6월 각각 1건씩 추락 사고가 이어졌고, 지난달 20일에는 40대 남성이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주민들은 “자살 명소로 불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남구는 최근 100kg의 충격을 견디는 와이어 추락방지망 설치를 추진 중이며, CCTV 추가 설치와 함께 다리 하부를 생태터널로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명의 전화’ 설치, 희망 문구 게시 등 심리적 안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준 기자



곰탕나눔 대한전직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들이 8일 북구 임동 봉사관 무료급식소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으로 곰탕과 수박 등을 대접하고 있다. 이번 곰탕은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으로 나주곰탕 하안집 운암점이 취약계층을 위해 곰탕 300인분을 후원했다.

김양배 기자

건조한 날씨 속 폐기물 처리장서 빈번한 ‘불’

7일에만 광주·전남 화재 2건 발생 화재시 토양 오염·대기에 악영향

고철, 박스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이 대형으로 쌓여 있는 폐기물 처리업장 등에서 최근 들어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곳 폐기물 업장이나 재활용 업장의 경우 특수 가연물들이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심각한 토양 오염을 부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소방기본법상 특수가연물에 ‘폐기물’이 분류가 되지 않아 소방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8일 영암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9분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8대와 인원 58명을 투입해 6시간22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처리장 2동(759㎡)과 내부 폐기물 등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후 3시51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에서도 한 재활용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원 42명을 투입해 1시간53분만에 불을 진전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7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외부 컨테이너 실외기의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36분께 광산구 덕림동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 범위가 상당해서 소방당국이 장비 24대와 인력 70명을 투입해 8시간40분만에 간신히 불을 껐다. 각종 폐기물 잔해물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6억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소방본부가 공개한 2020~2024년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재를 보면 전체 1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 현황은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3건 △2023년 5건 △2024년 1건이다.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재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이유로는 광주시처럼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단 1건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은선 동신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폐기물 화재의 경우 △재산 피해 △토양 오염 △유독 가스로 인해 대기 악영향 등을 지적했다.

백 교수는 또 “폐기물이 소방기본법상 특수가연물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 시설을 갖추는 등의 안전 관리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폐기물을 건물 안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 보관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 제도와 마련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정승우 기자

전남 초임 교사 퇴직자 5년간 226명

퇴직자 43명… 전년대비 9명 늘어 전남 1년 내 퇴직률 전국 1위

전라남도에서 임용 후 5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저연차 교원이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 미만 저연차 국공립 초·중등 교원 중 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의원면직 형태로 퇴직한 교원은 총 226명(초등 110명, 중등 116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43명이 중도퇴직해 전년 34명보다 9명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5명, 2021년 43명, 2022년 61명, 2023년 34명, 2024년 43명이다. 전남은 특히 임용 직후 1년 이내 퇴직자가 많은데, 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24년 기준 1년 내 중도퇴직자는 90명으로, 전체 임용 교원의 20.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반면 광주는 같은 기간 저연차 중도퇴직자가 6명에 불과했다. 초등 0명, 중등 1명씩만 퇴직했으며, 전남과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저연차 교사 이탈의 원인으로 △교권 침해, △사회적 인

식 저하, △업무강도 대비 낮은 보수 등을 꼽고 있다. 특히 교권 침해와 관련해 “수업 중 학생 휴대폰 알람·녹음·촬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높았고, 교사들의 90% 이상이 “교권 침해 현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전남 저연차 교원의 절반이 타 시도 임용시험 합격으로 진출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지역 교원 수급, 학교의 사기 저하 등을 초래한다며 우려가 크다. 2020~2024년 해당 사유로 퇴직한 교원은 총 103명에 이른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사 멘토링 확대와 관리자 면담 강화,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교직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교육계는 교권 회복과 처우 개선, 악성 민원 대응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남의 높은 퇴직률은 근무환경과 교권 보호 수준의 낮음에 기인한다”며, “국가 차원의 교권보호 법제 마련과 처우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도심 고층 오피스텔서 30대 여성 추락사

광주 도심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

전 11시21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25층에서 30대 여성 A씨가 아래로 떨어졌다.

현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가족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정유철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